

국정원 해킹 의혹 국산 스마트폰 판매에 '찬물'

올 가을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앞세운 삼성전자와 애플의 격돌이 예고된 가운데 최근 불거진 국정원 해킹 의혹이 흥행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이 육군 5163부대라는 고객명으로 이탈리아 정보기술(IT) 기업인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카카오톡 등을 들여다 본 정황과 함께 국정원 측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해킹을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공개되자 휴대전화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술렁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뽀뿌'에는 최근 국정원 해킹 사건이 다음달 출시되는 갤럭시노트5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대신에 애플의 아이폰6S는 도와주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예측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뽀뿌의 한 이용자는 게시판에 국정원 측이 해킹팀에 갤럭시S6의 통화를 녹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성공 여부를 떠나 이런 시도 자체가 갤럭시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만큼 곧 출시될 갤럭시노트5의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은 아이

갤럭시노트5 흥행 악영향

해킹프로그램 뚫지 못하는

애플 아이폰 도와주는 형국

폰의 운영체제인 iOS는 뚫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국정원 사태는 애플만 도와주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크게 회자되지 않던 국정원 해킹 사건이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올 가을 갤럭시노트5와 아이폰6S의 맞대결과 연관지어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와중에 벌어지는 올 가을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일전은 삼성전자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며 "이 싸움에 국정원의 해킹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지난 4월 야심차게 출시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기대에 못 미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애플에 넘겨준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5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런 기대감 속에 매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줄곧 공개해온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다음달 말 뉴욕에서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이 9월에 공개할 아이폰6S 시리즈에 앞서 프리미엄 대화면폰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최근 갤럭시S6엣지 32G, 64G, 128G 모델의 출고가를 10만~11만원 내리는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판매 점유율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하는 상황에서 터진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삼성전자로서는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며 "갈수록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의 성향에 비춰볼 때 어떤 식으로도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놓지 않는 20대 하루 평균 3시간44분 이용

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

우리나라 20대는 하루 평균 모바일을 3시간44분 동안 이용하며 짧고 가벼운 모바일 콘텐츠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KT경제경영연구소와 전국 20대 남녀 918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이 된 대학생 유모씨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리맡의 휴대전화를 찾아 지난밤에 친구들이 보낸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네이버에 오늘 날씨를 검색한다.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도 계속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식사 중에는 친구가 공유한 동영상 상을 감상하며,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도 새로 올라온 웹툰을 본다.

이런 식으로 온종일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20대의 하루 평균 모바일 이용 시간은 3시간44분이었다. 잠자는 시간(평균 7시간2분)을 제외하면 하루의 5분의 1을 모바일 화면을 보며 지내는 셈이다.

20대는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만 아니라 검색, 일정관리, 계좌이체와 같은 생활 전반에서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모바일을 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대는 휴식시간(하루 평균 50.2분)에 모바일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중교통·차량 이용 시(27.6%)라고 응답했다. 가장 집중해서 이용하는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26.5%)인 오전 0~1시였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SK텔레콤, 플랫폼 '클럽키즈' 나왔다 SK텔레콤이 어린이 전용 웨어러블기기, 요금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즈'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 심층적 니즈를 분석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새로운 생활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 '클럽키즈(Club T Kids)'를 22일 선보였다. <SK텔레콤 제공>

'공짜폰' 다음없는 초저가 스마트폰 종류는

LG전자 '볼트' 출고가 29만원 가장 저렴 KT 출시 'G 스타일로' 카메라 성능 우수

중저가 스마트폰이 상당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출고가는 싸고 보조금이 많아 판매가가 1~2만원에 불과한 '초저가 스마트폰'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시된 스마트폰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은 LG전자의 '볼트'다. SK텔레콤에서 월 5만 1000원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1만 9000원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해당 초출고가가 29만 7000원으로 싸고 공시 지원금도 27만8000원으로 많은 편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공시 지원금의 15%까지 지급할 수 있는 추

좋은 기회라고 볼트를 홍보했다. 특히 LG G시리즈의 대표 UX(사용자 경험)인 '제스처 샷'과 '글래스 뷰'를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기가급 LTE가 상용화된 상황에서 LTE-A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단점이다.

KT는 볼트를 유통하지는 않는다. 대신 4월24일 LG전자의 'G 스타일로'(Stylo)를 단독 출시했다. KT에서 월 4만 9900원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5만8000원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출고가는 31만9000원으로 볼트보다 다소 비싸다. 공시 지원금은 26만1000



볼트



G 스타일로

가 지원금을 고려하면 거의 공짜가 된다. 월 8만원의 데이터 요금제 선택시 추가 지원금 없이도 공짜다. LG유플러스에서는 월 5만9000원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만원에 단말기를 살 수 있다. 보급형 스마트폰인 볼트는 올해 4월17일 출시됐다. LG전자는 출시 당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원으로 책정됐다. G 스타일로는 볼트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크고 전면 카메라 성능도 우수하다. 5.7인치 대화면으로 필기 기능이 업그레이드됐다. 업계 관계자는 "화면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지만 음성이나 문자,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검색 등 간단한 데이터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는 스마트폰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앱

최근 습한 날씨와 더불어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치고 힘든 여름, 무더위를 타파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해보자.



전국계곡탐방 제작:이태권, 사용기반:아이폰·안드로이드
국내 계곡을 검색하고 싶을 때 활용 가능한 앱.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된 계곡을 검색할 수 있으며 GPS로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다. 아이폰에서는 inergy에서 제작한 '계곡' 앱을 통해 검색이 가능



Daily Water 제작:Hyominet, 사용기반:아이폰·안드로이드
사용자 정보를 토대로 하루 물 권장 섭취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 무더운 여름 탈수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아이폰에서는 partlemade에서 제작한 'Water Daily'라는 유사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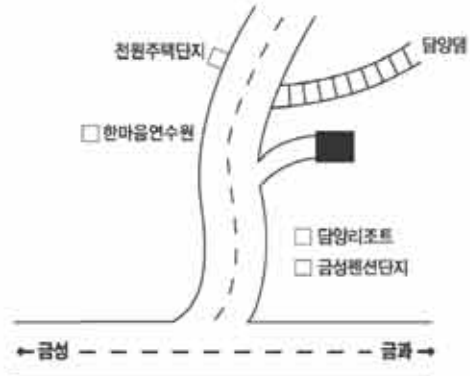
공포실화 제작:PREIR, 사용기반:아이폰·안드로이드
등골 오싹한 공포이야기로 무더위를 물리치는 앱도 있다. '공포실화'는 전 세계 다양한 괴담을 삽화와 함께 제공하는 앱이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소
ZOOOS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펜션 · 찻집 · 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 연수원 등 최고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 연 3억이상 순수익 창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현 감정가 - 28억
- 매매 - 22억원(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 주인직매 H.010-3605-5000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만호초등학교 건너편

돈되는, 근린상가 매매

현재, 박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7층중 7층 전체, 약 120평
- 현, 감정/시세 7억
- 대출 3억 6000만원 안고
- 매매 5억 5천만원
- 보 1억에 월 330만원 임대가능
- 60평씩 분할임대 가능
- 레스토랑/레스토랑/카페/커피점문점/호프/PC방 재즈바/노래홀/룸소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주인직매 H.010-3605-5000

